'96 韓民族종합학술대회 내년 7월 서울서 열기로

科總, 佛서 한민족과학기술자共同協 총회 개최
남북 과학기술교류 증진방안 등 협의

◀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95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참석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프랑스의 리옹에서 1995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를 과총창립30주년을 기념해 내년 6, 7월경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成樂正의장(과총회장) 주재로 鄭助英부의장(과총상임부회장), 李傑三간사장(과총사무차장)을 비롯 柳斗榮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金鉉佑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등 14개국 재외한국과협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 종합학술대회의 학술분야를 △기초과학 △전기·전자·정보통신 △고분자재료·화공 △기계·항공·산업공학 △환경·교통산업 △토목·건축 △농학·식품 △의약학 △과학기술정책 및 남북통일 △에너지안전공학 등 10개분과로 정하고 전문분야별 포럼 및 해외학위 취득 신진과학기술자들의 포스터 세션도 갖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사업 및 남북과학기술 교류증진을 위한 재외과협의 역할,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각 과협은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정보교환에 활용키로하고 과총은 데이터베이스사업 예산 확보노력과 E-mail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재외과협 대표들은 남북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북한학자와의 '대화의 장' 마련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재CIS과련회장은 내년 6월 모스크바에서 재CIS과련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남북한학자를 동시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재외과협 대표들은 이날 2천년대 복지사회 건설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최신과학기술개발에 적극 공헌할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공동선언문 전문은 별항과 같다.

한편 총회가 끝난뒤 열린 「재외과협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주제로한 특별세미나에서는 吳榮錫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9개국 재외과협대표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ST

공동선언문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5년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불란서 리옹에서 개최된 「'95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기간 중 2천년대 복지사회 건설과 선진국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한 2000년대 선진과학기술 창조"라는 조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신과학기술 개발에 적극 공헌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 진흥이 인류복지 증진과 국가발전에 핵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보 활용과 연구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이 국력신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 확보사업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과학기술 교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995년 10월26일